

연중 제21주일

기도서 419 면 (C해)
 제1독서 : 이사 66, 18-21
 제2독서 : 히브 12, 5-7. 11-13
 복음 : 루카 13, 22-30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구 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견책하시고...
 (히브 12, 6)



김준호 신부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 살게 된다. 어느 인간이 어느 위치에 선들 나름대로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고 살으랴마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와 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와 할 때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는나인 것이다.

이 세상에 왜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해버리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바오로는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고귀한 희생과 공로가 된다고... 까닭없이 자기 자녀를 눈물 흘리게 하는 아버지가 없듯이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하느님이 보내시는 단련임을 알고, 오히려 그런 훈련 없이는 값 있는 생이 될 수 없으니 잘 참아 견뎌야 한다는 요지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신자들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원망과 비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좌절과 실망 속에 허실하는 것을 본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노상 고통 속에 찌뿌런 얼굴의 근엄한 생활만은 결코 아니다. 고통과 기쁨의 리듬을 타는 교차적인 생에서 고통을 극복하자는 생활일 뿐이다. 그 기쁨은 물론 구원의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은 고통 속에 속박되어 있던 자라야 그 진미를 알 수 있다. 고통은 오히려 기쁨을 위한 의미있는 과정인 것이다.

신자와 비신자는 무엇이 다른가? 인간이라는 똑같은 조건 안에서 신자라고 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화 시키느냐가 하느님을 모르는 자와 달라야 한다.

똑같은 고통이라는 인간적 조건에서, 믿음의 눈이 트인 사람에게는 고통 저 건너편 기쁨의 희망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이끌어 줄 구원자의 손길을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고통의 행진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구원자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에 넘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 내시오”(히브 12, 6-)

(장계본당 신부)



농민들 대표는
 농민 손으로 뽑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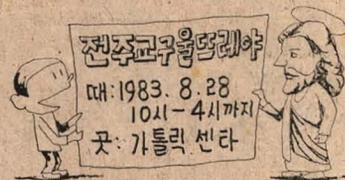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시골 아낙네가 이 무더운 날씨에 아이를 들쳐 업고 들로 나갔다. 할 일이 썩어버려서 일하러 나간 것이다. 어린것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는 지라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눕고 일을 마쳤다. 그런데 그만 아기가 죽어버린 것이다. 뺨이 어린것 입 안으로 가어들어가 질척하고만 것이다. 가슴이 미어진 남편은 아내를 다달하며 손찌검까지 했다. 심장이 찢어진 엄마는 끝내 미쳐버려 읍내를 울며 헤매고 있다한다.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이야기다. 어쩌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고개를 흔들고 싶은 심정이다.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끼니를 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서슴없이 이웃을 짓어버리기도 한다.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상대방의 손발을 꽂꽂 묶어버리기도 한다. 입으로는 애국가라고 자처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권세와 영달만을 바라면서 말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에 충실하다가 변을 당하기도 한다.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땅을 믿고, 땅을 쳐다보며 사는 농민들은 참으로 정직하다. 힘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짓어길 수도 없다. 오직 자연법칙에 순응하면서 보다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땀 흘릴 뿐이다. 비록 지금의 우리 처지가 어렵기는 해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순박한 농민들의 땀방울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어렵게 변해도, 그들의 묵묵한 행진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조그만 소망을 들어주어야 할 때이다.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 조합장을 그들이 뽑게 해주자.

숲정이 산책



전주교구우울명령야
 때: 1983. 8. 28
 10시 - 4시까지
 곳: 가톨릭 센터

꾸르실리스타 여러분
 기쁨을 나눠주세요

한 여름 밤의 편지

정신 박약아의 성호(聖號)

전 병 구

언제나 웃을 수 만은 없듯이 항상 슬픔과 아픔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소나기 내린 뒤 더 맑고 초연한 햇살이 퍼짐을, 구름은 영원히 해를 가리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이치를, 결코 나열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실 당시, 한때는 정말 한때는 고독한 문학도였던 당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반딧불 반짝이는 풀밭에 벌레우는 소리, 달빛이 부서져 은가루 뿌리는 시냇물에 몸을 담그며 행여 훑쳐 보는데 없을까? 꼬마인 저는 망을 보았지요. 바위 위에 팔을 괴고 누워 콧노래로 시냇물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공동묘지, 도깨비불, 귀신 얘기로 깊어가는 한 여름 밤의 아름다운 낭만을 지냈던 당신을 내 어찌 잊으리까. 당신으로 인한 신앙에의 기여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 수 없으며 크나 큰 은총의 소산이 아닐 수 없음을 다 자란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 많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한 삶을 논할 수 있는 행복을 간직하고 희노애락 속에 순간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숨결을 당신은 잊은지 오래인 것을 나는 압니다.

어느 날이었든가, 그 옛날 무서운 악마가 우리 가족을 덮치던 날 당신은 자신의 명예를 감당 못하고 어느 불행한 미혼모처럼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神은 하나의 상처를 만드실 때 치유의 기쁨도 함께 마련하십과 하나의 고통이 그 의미의 열매를 맺어 영글때까지 인내의 스승 새 소망의 뿌리가 되기까지 모든 것 아버지 손에 맡겨드릴 사고로 성장했을 때 자기를 버린 모체에 대한 원망보다도 자신을 이 눈부신 세상과 입맞출할 수 있게 해주십에 진정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발 뒤좀 돌아보세요."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뜨세요."

10여년이 넘는 긴 동안을 잠만자는 당신이여! 모든 생물들도 새로 나게 하는 "봄"이 있음을 깨달으시라고, 밖에 드릴 말씀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

하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리 멀지 않은 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타인이 될 수 없는 당신과 함께 진정한 평화 안에서 기쁨의 여로를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1983 . 8

냉담하고 계시는 오빠에게. -동생 정희 올림

□ 주교님 귀국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께서 지난 17일 해외 교포 사목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다.

주교님께서 지난 6월 30일 출국하셔서 중남미지역 교포 본당을 방문하셨고 특별히 전주교구 소속 신부들의 사목본당을 방문 위로하셨다. 여행중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성당 마당에 들어서서 성모상 앞에 잠깐 기도를 하려는데 한 아이가 옆에서 성호를 긋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곧 그가 정신박약아임을 알 수 있었다. 성서와 성가집 그리고 기도서를 커다란 가방에 넣고 성모님께 인사를 하려고 성호를 긋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미사 도구가 든 가방을 가만히 발 아래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밑에 댄 후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친진한 어린이처럼 성호를 완성시키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한 결과 정말이지 '겨우' 성호를 그었다. 이마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손이 쉽게 왼쪽 어깨에 닿질 않고 갈피를 못잡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 차례 결국 성호를 완성시킨 그 정신박약아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방울이 맺혔지만, 입가엔 만족의 미소가 보였다. 그 당시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몹시 안타까웠지만, 다음 순간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 정박아에게는 도저히 비길 수도 없는, 위선과 형식적이며 이기적인 나의 신앙을 보았다.

미사 시간 중에도 성당 맨 앞 좌석에 앉은 그는 열심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세가 아닌,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찬미하였다. 진실된 모습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신부님의 말씀 하나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성서와 성가집도 열심히 찾아 읽고, 노래 불렀다.

막연히 미사를 참례하고, 아무 의의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신박약아는 더없이 좋은 선생이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남의 눈치가 두렵고 부끄러워 삼그머니 수저를 들거나, 주위를 경계하며 성호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소년은 남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의 표현을 위해 세번 네번 성호를 반복하면서 끝내 해내고만 것이다.

웃짐없는 눈동자와 불안한 몸자세를 한 정신박약아였지만 미사시간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에겐 만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우리는 언제나 성당 일에 전념하며 매사에 큰소리로 앞장서고 남에게 내보이려 하지만, 진실로 우리의 내면에도 주님의 평화가 깃들어 있으며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위선과 허세가 있는 한 겸허한 자세로 성호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박약아만 못하리라.

(노송동 본당)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 일 씩 크
전북 총대리점
◦주방설계 ◦싱크대수리
◦가스렌지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①0841 야간 ②9874
박 안 당 (윤규)

전주 꽃 직매장
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락도(덕배)

해외여행 업무개시
성지순례(국내외)안내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철도청 열차표 발매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농협 조합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즈음하여

장마와 폭염 속에 전강하시웁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가톨릭 농민회에서 농민의 경제, 사회적 이해가 밀접하고 농업발전과 농촌사회의 민주화에 중요한 입장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 실시를 위한 전국적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농협의 목적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 농협은 조합원 농민의 자주적 참여와 결정에 의한 조직 운영과 사업이 아니고, 조합원의 의사를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중앙회와 농수산부의 지시, 부과, 감독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사업은 농민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원치않는 사업까지 하며, 농촌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이 농민의 신뢰와 협동심, 조합원의 자주성을 회복하여 농민의 협동조합으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을 농민이 직접 뽑는 일이 급선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농협 읍면단위 조합장을 20여년전에 제정된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중앙회장이 계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는 농협을 민주적 농민조합으로 만들기 위해 70년대 초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농협 민주화를 통해 농민문제 해결과 국민의 생명업인 농업 발전에 봉사하겠다는 농민회의 순수한 뜻을 살피시고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기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1983. 7. 30

한국 가톨릭 농민회 담당주교 황 민 성

성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 전북지부 제4차 총회 및 수련대회

아래와 같이 성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북지부 제4차 총회 및 수련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 시: 8월 26일 오후 1시~27일 오후 5시(1박 2일)
2. 장소: 전주 중앙 성당
3. 접수마감: 8월 26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1시간)
4. 강 사: 한국연합회 지도신부 및 저명인사
5. 참가비: 3,500원(숙식차 3식 제공), 1,500원(숙식 제외)
6. 준비물: 성서, 성가집, 기도서, 수도복, 칠락묵주, 단 숙식차는 세면도구, 담요 1매
7. 대회주최: 전북지부 형제회

□ 「어린양」 보내기의 숨은 은인들

교구청 홍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 「어린양」 보내기 운동에 숨은 은인들이 있어 삼례 왕궁공소의 7개 공소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홍보국에서는 계속해서 「어린양」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주보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공소의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히 중앙성당 주일학교 자모회(7명)에서는 매달 3만5천원씩을 보내주고 있고, 익명으로 만사백원씩 보내주는 분이 있어 「어린양 보내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심이(524) 김병오



월명동 성당 버스

성지순례단 위해

특별 봉사

기간: 토·일요일

*원차를 새차로 바꾸었습니다.

연락처: 군산 월명동 성당

전화: ① 2041

② 8445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속 일체
- 커넥터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신규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인원: 남자 0명, 여자 0명
2. 응모자격: ①남자 30~35세(병역필자) ②여자 18~22세 ③남·여 고졸 이상인자 전주내내 거주자
3. 제출서류: ①자필이력서 1통 ②명함판사진 2매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병적확인서 1통 ⑤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⑥자격증 사본 각1통
4. 제출처: 당신청 총무과 전화 ⑥0810 ⑥6009
5. 제출마감일: 1983년 8월 27일 오후 5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전주 임원신탁 이사장 김 영 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 **축! 김재 제 2 성당 기공식 및 견진: 21일**
1.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수류-27일~28일, 고창-29일~30일, 정읍-9월 2일~4일
 2. 성령채신 봉사자 모임: 25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미사 있음, 주제-은사문제
 3. 제 4차 M.E. 주말교육: 26일~28일, 장소-광주 명상의 집
 4. 꾸르실료 교구 울드레야: 28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타 3층 강당
 5. 농민회원 연수회: 22일~24일, 장소-가톨릭 센타
 6. 200주년 2차 교구 사목회의: 30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센타
 7.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식: 26일<금> 오후 8시 가톨릭 센타
 8. 인권수호를 위한 기도회: 22일 오후 8시-군산 둔용동 성당
- **축! 영명: 성 발도로메오(24일)**-문 정현 신부님
 성 아우구스티노(28일)-김 재덕 주교님, 이 상호, 김 영일, 장 덕창 신부님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협**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24일, 많은 기도 바람
 2. 방지거3회 피정: 26일~27일, 시간-9시30분
장소-중앙성당, 준비물-성경·성가·기도서·묵주, 회비-1,500원, 1박2일(3,500원)
 3. 육사생도 방문: 29일
 4. 가정방문: 30일부터 신축헌금을 위한 가정방문 시작
 5. 신축헌금 신임해 주신분께 감사: 유영호(3,500원), 이수현(22,530원), 복주신공-432,403단
- **지난주 봉헌금: 919,780원 교무금: 864,500원**
 성모승천 대축일 헌금: 570,785원
 감사헌금: 이요한 5,000원

5천원-김귀남·최재문·안병주, 3천원-오귀복
 누계-4,441,000원

8. 금주전례: 해설-이명례, 독서-①김성원 ②천 건
차주전례: 해설-이규원, 독서-①양규철 ②박상기
- **지난주 봉헌금: 465,140원**
 성모승천 헌금: 227,800원

(서학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2. 교구 울드레야: 28일(일요일) 꾸르실리스타 모두 참석합시다
 3. 손님신부님 미사: 21일(주일), 28일(주일)
꾸르실료 교육관계로 손님 신부님 미사
 4. 30대 성서모임: 23일 저녁미사 후
 5. 교무금 월납: 관직을 가집시다
 6. 2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기념품 판매: 사무실
 7. 차주전례: 독서-①박형식 ②김낙균
- **지난주 봉헌금: 292,365원 교무금: 141,000원**

(노송동)

신부 0969
 주·사 07032
 주임 신부 **김웅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구역모임의 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구역장 모임: 22일 오후 3시
모임 보고서 및 견진대상자 명단 가져오세요
 3. 환자봉성체: 23일 오후 3시부터
환자를 모신 가정에서는 이날 대비하세요
 4. 축! 여성 꾸르실리스타 3명 탄생: 장옥남·김귀례
·진진자 자매, 빨랑가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
 5. 감사드립니다: 본당 청년회 정요셉의 장례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모금액 26만8천원)
 6.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7. 아파트 성당에 꽃봉헌: 이하야친따씨께 감사
- **지난주 봉헌금: 372,335원 아파트: 76,950원**
 교무금: 171,000원 아파트: 25,000원

(숲정이)

전화 07366
 주·유 0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남**

1. 요한회 릴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 정 부회장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애령회 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 감사: 첫영성체자 자모님들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5.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황현도·김남근
기도-김경주·허유순
 -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홍성조·선종현
기도-이은자·강삼
- **지난주 봉헌금: 201,865원 교무금: 364,300원**
 성모승천 헌금: 139,095원

(떡진)

신부(3) 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 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 모임: 반석회·청년회·성모회(공식미사 후)
 2. 수녀님들 세미나 참석: 22일~27일
 3. 어머니성가대 재결성(임원개선)
단장-박헬레나, 부단장-이글라라, 총무-유글로틸
다, 회계-최아셀라
 4. 주일학교 어린이 할주미사: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5. 예비자 모집: 신청서 금주까지 제출 바람
(9월 1일 개강-수·목요일 저녁 8시)
 6. 차주 모임: 진부회 릴레회
 7. 꾸리아: 오늘 2시, 교육관에서
- **지난주 봉헌금: 460,750원 교무금: 627,500원**
 신학생 후원금: 399,350원(4대축일 헌금)

(전동)

신부 06208 주임 신부 **김병익**
 전화 사무 03222 보좌 신부 **박찬두**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피미시움: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4. 예비자 교리반 안내: 수·목 오후 8시-박찬길 신부
토(학생) 오후 3시30분-유요아킴 수녀
 5. 금요성서 안내: 매주 금요일 8시-사제관
 6.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최정식 ②최종만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김병오
저녁미사: 해설-김석란, 독서-①정동희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593,230원 성모승천헌금: 417,500원**
 교무금: 134,000원

(복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견진받으실 분: 다음주일까지 신청 바람
3. 견진교리: 9월 5일·12일·19일·26일 저녁 8시~
9시30분
4. 200주년 헌금: 9월 4일 200주년 헌금봉투에 정성들
다해 봉헌합시다
5.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6. 23일~25일까지 미사 없음
7. 수녀원 헌금: 10만원-익명, 3만원-익명·임경애,
5만원-염규철·이원순, 10만원-진양순, 1만원-김
순자·양성남·이유례·김연녀·조경순·송정례,

(파티마)

신부 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전화 수녀 0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다음주 김 진소 신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어린이 유아세례: 8월말 주일에는 없음
단, 다음 9월 일반세례시에 있음
 3. 필리미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없음
 4. 토요일 종교생미사 토요일 특전미사 없음
단, 9월 3일 성모기사회는 있음.
아울러 오신부님께서 기사회 미사가 있음을 알림
 5. 병자성사: 시네 어느 본당 신부님께 요청하셔도 됨
 6. 성지순례 중인 본당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42,090원 교무금: 273,000원**